

돈암서원

수신자 문화재청장

(경유)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사법단속팀

제목 돈암서원 소장품 도난 신고관련 변경 요청

1. 평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재청에 감사드립니다.
2. 돈암서원은 1996년 12월 11일에 191점의 목판(황강실기 90매, 사계유고 60매, 신독재유고 41매)과 간찰류 등을 도난당했다고 10년이 지난 2009년 10월 7일에 문화재청에 도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신고는 2008년 9월부터 원장직을 수행한 김용송 씨가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2012년 11월 13일에 81세로 별세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돈암서원에는 소장품 목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한 191점이 유실인지 도난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물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도난이라고 했는데, 신고 당시 신중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4. 이에 돈암서원에서는 원장 이하 장의들이 협의하여, 문화재청에 도난 공고된 것을 유실로 변경 검토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2년 3월 2일

돈암서원 원장 김 선 의

遯巖書院



담 당 백승례

원 장 김선의

시 행 돈암서원2022-005 (2021.03.02.) 접 수 ()

주 소 3291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전 화 041-733-9978 / 010-9422-7456

이메일 oddy76@naver.com

/공개